메시지 7

존귀와 영광에 이르는 긍휼의 그릇들, 밀알들, 포도나무의 가지들

성경: 롬 9:21, 23, 행 9:15, 고후 4:7, 요 12:24, 15:1, 4-5, 7

Ⅰ.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은 존귀와 영광에 이르는 긍휼의 그릇들이다. 우리는 긍휼과 존귀와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들이다 — 롬 9:21, 23.

A.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분의 그릇, 그분의 질그릇으로 지으시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그분으로 채워지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여 그분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단체적인 그릇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하시는 것이다 — 창 2:7, 행 9:15, 롬 9:21, 23, 고후 4:7, 딤후 2:20-21, 마 25:2-4, 8-9, 슥 4:11-14, 비교 계 3:18.

B. 바울의 열네 서신서 전체는 두 단어, 즉 '열린 그릇'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실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열려 있는 정도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열어 두는 것이다 — 왕하 4:1-7, 마 5:3, 요 1:16, 사 57:15, 66:1-2.
2. 쇠퇴는 자기만족에서 시작하고, 발전은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시작한다 — 신 4:25, 눅 1:53, 빌 1:25, 계 3:16-18.

C.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담도록 긍휼의 그릇들로 창조되었다 — 롬 9:11-13, 16, 20-21, 23, 애 3:21-23, 눅 1:78-79.

1.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것이며, 이 긍휼로 인해 우리는 가련한 위치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상태로 구원받는다 — 엡 2:1-4, 히 4:16.
2.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거절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회복의 길을 취하지 않고 물러났을 때 우리는 이 길을 취했다 — 영한 동번 찬송가 296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34장) 3절.
3. '긍휼'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외적인 행동을 가리키며,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본질에서 비롯된 그분의 내적인 애정을 가리킨다 — 롬 9:15, 마 9:36.
4. 우리는 매일 아침 자애로운 분이신 하나님을 접촉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왕국의 실재 안에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 애 3:21-23, 마 5:7, 7:1.

D. 우리는 귀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담도록 귀한 그릇들로 창조되었다. 귀한 그릇들은 예방접종자들, 곧 교회의 하락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예방접종하는 이들이다 — 딤후 2:20-22, 삿 9:9, 삼상 2:30.

1. 예방접종자는 교사,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사역자,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신의 영을 사용하여 교회생활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이이다 — 딤후 2:2, 1:13-14, 딤전 4:6-7, 6:20.

2. 예방접종자는 군인으로서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의 다른 가르침들에 대항해 싸우면서 사도의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며, 생명으로 충만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에 맞서 싸운다 — 딤후 2:3-4, 딤전 1:18, 롬 8:6, 11, 5:17.
3. 예방접종자는 경기자로서 자신의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피함으로써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 딤후 2:5, 히 6:18-20, 딤후 2:22.
4. 예방접종자는 농부로서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에 의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생명의 씨를 사람들 안에 뿌리고, 그분의 건강한 말씀에 의해 생명의 영으로 그들에게 물을 준다 — 딤후 2:6, 고전 3:6, 9, 고후 6:1상, 눅 8:11, 요 7:38, 6:63, 고후 3:6.
5. 예방접종자는 일꾼으로서 (목수가 곧게 자르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곧게 자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부분을 조금도 왜곡되지 않게 올바르고 곧게 밝혀 준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독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며, 죽음을 삼키고, 빗나간 믿는 이들을 합당한 노선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밝혀 주는 것이 필요하다 — 딤후 2:15, 비교 행 26:18, 시 119:130, 133.

E.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영광의 그릇이다.
1. 영광은 표현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다 — 렘 2:11, 행 7:2, 엡 1:17, 고전 2:8, 벧전 4:14, 골 2:9.
2. 질그릇인 우리 안에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가 거하고 있다(고후 4:7).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고후 4:6), 곧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인격'(2:10)이다.
3.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이신 주 영을 바라보며,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된다' — 고후 3:16-18.
4.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보는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사 60:1, 5.

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밀알들이다 — 요 12:24.

A.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출된 많은 밀알들은 한 떡 곧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기 위해 있다. 소제물로 상징된 것처럼, 밀알들은 부서지고 기름과 연합되고 화덕에서 구워지고 한 떡으로 함께 섞여 한 덩어리가 된다 — 고전 10:17, 레 2:4-5.

B. 주님은 땅에 떨어진 밀알처럼 죽음을 통해 그분의 혼생명을 잃어버리심으로써, 부활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불을 해방하시어 '많은 밀알들'에게 주셨다. 많은 밀알들인 우리도 반드시 죽음을 통해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버림으로써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불을 누리고 이 불을 해방하여 다른 이들에게 주어야 한다 — 요 12:24-26, 눅 12:49-50, 고전 15:31, 36, 고후 4:12.

C.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부서지고 소모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 — 고후 4:16, 10–11, 딛 3:5, 엡 4:23, 5:26.

D.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반드시 매일 세 가지를 읽어야 한다. 즉 성경을 읽어야 하고, 자신의 내적 느낌을 읽어야 하며, 자신의 환경과 상황 곧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일들과 문제들을 읽어야 한다 — 롬 8:6, 비교 잠 16:9.

E. 우리는 다른 이들이 바뀌기를 기도하며 바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할수록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임을 더 분명히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롬 8:28–29, 비교 6:3–4, 왕상 7:17, 20–22.

F. 우리는 운행하시는 영과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 빌 4:12, 엡 3:1, 4:1, 6:20, 고전 7:24.

G.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불평이 최상의 기도, 하나님께 가장 유쾌한 기도일 수 있다. 우리가 불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 비교 시 102편, 제목.

Ⅲ.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다 — 요 15:1, 4–5.

A. 그리스도인 포도나무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그 가지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로서 그분의 풍성으로 자라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표현한다 — 요 15:1–5.

B.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즉 그분 안에 머물고 남아 있고 거주하면서,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죽지 않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살아야 한다 — 요 14:6상, 고후 5:4.

C.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여 열매 맺음을 통해 신성한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다 — 요 15:9–10, 16–17.

1.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써 여러분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 요 13:34–35, 비교 요일 4:18–19.
2.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으로 채워질 것이고, 우리를 내적으로 채운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밖으로 나올 것이다. 주님을 극도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말해 낼 수 있도록 자격을 갖고 온전하게 되며 준비된다 — 요 21:15–17.

D.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매일 매시간 우리 자신을 그분과의 교통 안에 두어,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생활 전체가 신성한 교통에 달려 있는데, 신성한 교통은 바로 순환하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고, 흘러 들어오게 하시며, 전달하시고, 운반하시며, 옮겨 주시고, 분배하시는 것이다 — 요일 1:3, 고후 13:14.

E.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그분의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한다면, 영과 생명인 그분의 즉각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다 — 요 15:7, 5:39-40, 8:31, 6:63.

F.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각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번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앎으로써 자라는 것이다' — 골 1:10.

G. 열매 맺음은 속생명의 풍성이 넘쳐흐른 것이다. 속생명이 차고 넘칠 때 흐름이 있게 되고, 이 흐름은 다른 이들에게 도달하고 그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그들을 남아 있는 열매가 되게 하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 요 15:16.

© 2026 Living Stream Ministry